

# 청춘·자연·예술 어우러진 '문화성찬'에 푹 빠지다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1>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전남문화재단 등이 주관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 곡성, 해남, 완도 등지에서 연말까지 다른 테마로 펼쳐질 이번 프로그램은 공연, 체험, 전시 등으로 채워진다. 광주일보사는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소식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생태와 인문, 삶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성찬이 지역 곳곳에 '배달' 왔어요."

지난 3일 오후 전남 구례군 서시천 일원에서 열린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행사 현장은 청춘의 열기와 자연의 고즈넉함, 예술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진 특설무대, 플라마켓을 비롯해 체험형 예술프로그램과 생활레저를 즐기는 시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대표 김은영)이 도내 12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구례군이 주최했으며 재단, 자라는공동체 등이 주관하며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시천체육공원 일대는 문화예술체험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먼저 오후 4시 서시천에서는 '대지의 미술'이라는 주제로 환경예술 체험형 교육이 진행됐다. 중·고교생 20여 명은 나뭇가지, 돌, 풀밭 등 주변 자연물을 이용해 나무와 풀밭을 나만의 아지트로 탈바꿈시켰다. (강의는 오지근 그림책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형주(12·구례군 삼동면)군은 "종이와 색연필, 물감 등을 사용해서 그리는 일반적인 미술 작품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지트를 만드는 활동이 좋았다"며 "들레와 물, 바람과 같은 자연 요소들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이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시천공원 일대에서 문화예술체험

'대지의 미술'·'카약 체험장'...

생활레저·공연·플리마켓 등 풍성



청소년 연합밴드 '청춘소묘'의 공연 장면.

람과 같은 자연 요소들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이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들이 가장 붐볐던 장소는 섬진강 지류인 서



생활체육 콘테스트인 '스트리트 리프팅 풀업 챌린지', 지역 버스킹팀 공연 '도파민 폭발-도발'을 즐기러 서시천체육공원에 모인 시민들.

시천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카약 체험장'이었다.

주말을 맞아 '카약'을 타려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보물찾기 테마를 접목해 전변 곳곳에 숨겨진 페트병을 찾고, 숨겨진 키즈를 풀어 구제 산수유 등 로컬자원을 활용한 선물을 받아갔다.

기차도 2인승 카약에 올라 전변을 한 바퀴 둘러봤다. 배의 방향을 조절하기 쉽지 않았으나 잠시 패들을 놓고 주변 경관에 푹 빠지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참가자들은 구슬땀을 흘렸지만, 인근 산성봉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자연 자체가 '보물'이었다.

이날 아들 도원(5) 군, 딸 시원(7) 양과 함께 카약을 탄 미국 출신 니콜라스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문화배달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함께 찾아왔다"며 "평소에 즐기던 대

중가요 위주로 선곡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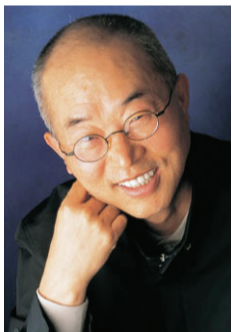
공연의 막은 3년째 연속 출연하는 장예진(구례고) 학생이 김광석의 '편지', 엔플라잉 곡 '옥탑방'으로 열었다. 이어 구례여중, 구례자연고 등 4개 중·고교의 연합밴드 '청춘소묘'가 루시의 '조강', 크라이닉의 '룩셈부르크',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를 불러 열기를 더했다.

구례여중 댄스팀 '유벤타스'의 군무는 미래 동량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이었다. 키스오브라이프의 '미아디스 터치', 블랙비 '하' 등에 맞춰 화려한 안무를 보여줬다.

끝으로 구례고 밴드부 '봉성로 1518'도 낭만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푸른 신록과 수변공원, 예술의 낭만에 푹 빠진 관객들은 잠시나마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행복한 '도파민'에 빠진 듯했다. /글·사진·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 김대중내란음모 옥고·작가회의 활동...현대사 굴곡 헤쳐온 故 송기원 작가

구도의 길 모색...마지막 작품은 '숨' 올해 1월 오월미술관서 시화전 열어



최근 별세한 보성 출신 송기원(사진) 소설가는 평생 작품을 통해 구도의 길을 모색했던 작가였다. 또한 그는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문인 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회가 적극 참여했으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고인은 말년에 해남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펼쳤다. 올해 1월에는 강대철 조각가와 함께 오월미술관에서 시화전 '그대가 그대에게 절을 올리니'를 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전시를 위해 잘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도 그렸다. 시화전의 시들은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잡언의 형식과 연관된 짧은 시들이다"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주제의식을 담아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전에 세상의 상처와 치부 등을 탐미적인 문장, 구도적인 서사로 풀어내는 작품을 지향했다. 마지막 장편 '숨' (마음서재)은 백혈병으로 먼저 딸

가 가까이 된다"며 "인연이 되어 책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을 펼쳐서 그들이 깊은 곳에 못 박힌 고통까지 녹아나게 되기를"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47년 보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교재학 시절(1967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서라벌대에 문예창작과에 입학 후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1974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이름을 각인시켰다.

동인문학상, 오영수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대산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장편 '너에게 가마나에게 오라', '정산', '안으로의 여행' 등과 시집 '그대 언살이 터져 시가 빛날 때', '단 한번 보지 못한 내 꽃들' 등을 펴냈다.

고인은 작가회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회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회원들과 함께 김지하 시인 석방을 촉구하는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했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렀으며 1985년 '민중교육 필화사건'으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송 작가는 문학 외에 명상과 수목화에도 관심은 물론 조예가 깊었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수행의 시간을 가졌고 지난 2022년에는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선정, 그 깊고 아득한 순정의 세계'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 바 있다.

한편 김준태 시인은 "송기원 작가는 베트남전 참전, 김대중내란음모 옥고, 민중작가회의 활동 등 현대사의 굴곡을 헤쳐 오며 개성적인 작품활동을 펼쳐왔다"며 "오랜 벗이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오페라 여행

판타지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 24일 ACC 예술극장

인어 '아리'와 물의 아이 '오동'이 그리는 우정 이야기.

클래식극장이 애니메이션과 오페라를 결합한 판타지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를 선보인다.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2).

공연은 떠오르는 젊은 오페라 싱어부터 뮤지컬 배우들, 클래식 연주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선정작이며, 같은 해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오페라페스티벌 상연작으로도 선정됐다.

어릴 적 큰 해일로 부모님을 잃어버린 '오동' (테너 김지훈 분)은 바다 위를 떠다니다 인어 '아리' (소프라노 최예은)에 의해 발견된다. 신비한 바다의 힘이 깃든 인어 진주와 미역 덕분 오동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어는 공포의 존재일 뿐, 각종 모함과 음모로 인해 둘은 헤어지게 된다.

이후 14년 시간이 흘러 성장한 오동은 우연히 해일에 휩싸여 인어의 세계에 들어간다. 둘은 재회한 뒤 우정을 나누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일



애니메이션 '물의 아이'

이 인어때문이라 생각해 주술사 '우루술사(바리톤 류동우)'를 불러 그녀를 죽이려 한다.

과연 오동은 아리를 구하고 마을과 바다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오동을 거친 단체 및 기관은 한예종 음악원 예비학교와 성악과를 졸업한 뒤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비엔노 최고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필름극장과 국립오페라단에서 리브롤을 받은 소프라노 최예은도 출연할 예정이다. 한예종 성악과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오페라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필름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약했다. (작곡에 한대섭) 전석 2만원. 인터파크티켓 예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 가족의 재구성 '마음 조각'

나다영 개인전, 23일~9월 3일 우제길 미술관

일반적인 회화 작품은 캔버스에 물감을 사용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 오늘날은 재료와 기법의 다양화로 전통적인 회화와 변별되는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나다영 작가는 대학(전남대)에서 의류와 경영학을 전공한 이후 독특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주전공이 의류학인 만큼 패션 소재인 가족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왔던 것.

나다영 작가가 우제길 미술관에서 개인전(23일~9월 3일)을 연다. '마음 조각'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가족을 하나의 생명체로 상징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작가가 작품에 사용하는 'Vegetable Leather'는 화학적 공법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공법을 활용한 가죽이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작가의 철학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결의 연속'이라는 작품은 작가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색종이 놀이에서 착안했다. 연결 고리를 매개로 구현된 작품은 반복성, 무한성, 확장성을 상징한다. 연속이 그 자체로 연결임을 상징한다면, 중단 없는 연결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읽

힌다. 가족이라는 사물이 지닌 물성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 제목이기도 한 '마음 조각'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내면의 모습을 표현했다.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마음의 파편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마음이 다양한 모형으로 변환된 것이다. 나 작가는 "버리지 못한 가족 조각들이 언제부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문제가 돼 버렸다"며 "뒤엉킨 조각은 오랫동안 꺼내놓지 못해 왜곡돼 버린 제 마음의 조각과 닮았다"고 말한다.

한편 김민지 에듀케이터는 "이번 전시에서는 가



'마음 조각'

족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변화무쌍한 마음의 무늬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작가의 작품 세계 내지는 작품의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 후원으로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신청' 9월 25일까지 접수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기업 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거치면 KB국민 우대혜택은 물론 문화예술 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패) 제공, '인증 사례집 발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기회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문체부 장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25일까지 받는다. (문예위 누리집에서 신청)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 실적 포함된 공적서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 평가단이 평가

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에 따라 조직역량, 운영체계, 후원 성과 등을 기준으로 최종 인증단체(기업)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을 거친 단체 및 기관은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수여', '문화향유 지원',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패) 제공', '인증 사례집 발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기회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문예위 이계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은 "현대판 '메디치'를 찾는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사업이다"며 "현재 후원우수기관은 총 64곳이지만, 향후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